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제 962호 현대불교 A29
2013년 10월 16일(음 9월 12일) 수요일 / 불기 2557년

이 세상에 독불장군으로 혼자 사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지금 금속이나 전력이 곳곳에 쓰이지 않는 데가 없듯이 우리의 마음의 금속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아니 쓰여지는 데가 없다 이 소립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아프면 의사가 되고 내가 명이 짧을 때는 철성이 돼 주고, 물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서 거기가 모든 걸 맡겨 놓고 '너만이 잘 가게 할 수 있다.' 했을 때에는 바로 용신이 돼 주고, 먼 길을 갈 때 바로 내면세계의 주인공에다 맡겨 놓으면 자신이 돼 준단 말입니다. 이것을 못 믿겠결랑 한번 여러분 가정을 들여다보세요. 아버지가 아버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때로는 아들이 되고 때로는 남편이 되고 때로는 아버지가 되고 때로는 사위가 되고, 어느 회사의 직원이 되기도 하고 사장이 되기도 하고 국회의원이 되기도 하고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이름이 수만 가지로 그렇게 스스로 자동적으로 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남의 뿌리에다가 내 뿌리가 돼 달라고, 내 나무를 성장하게 해 주고 푸르르게 살게 해 달라고 빌거나 기도하지 말고 내 뿌리에 내가 직접 '네 몸을 형성시켰으니까 너만이 잘 끌고 갈 수 있고 건강하게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너 뿐이다.' 이렇게 모든 것을 해 나가는 것이 한 가정에 이익하고 그렇습니다.

달마 대사가 양 무제더러 너는 공덕이 하나도 없다고 한 말과 그 뜻을 아시죠? 그리고 또 유마할 거사가 내 중생부터 나아가 내 병이 낫겠다고 한 말. 그것은 내면의 여러분 생명들이 다 나아가, 병이 들지 않고 파위를 일으키지 않아야 여러분이 건강하고 가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건강하며 화목하다 이겁니다. 자식들도 그렇고, 나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욕하고 때리고 그러지 말고, 또 어떠한 일이 생기거나 사회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거론이 된다 하더라도 남을 원망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주인공에다 모든 것을, 잘못된 것 잘못된 것을 판단해서 거기가 맡겨 놓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원망하지 않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가정도 화목해지고 사회도 화목해지고 모든 게 다 화목하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 다 아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질문자1(남): 큰스님의 귀한 설법에 감사드립니다. 평소 큰스님의 설법에 항상 감복하고 깨달은 점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생활 참선 혹은 관법에 대해서 몇 가지 의정을 갖고 있는데 소박한 마음으로 이 궁금증에 대해서 큰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큰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시기를 관법을 잘 익히라고 하십니다. 일반 승가에서는 조주 선사의 '무' 자 화두나 '이 뭣고?' 화두를 듣고 정진하는 경향에 비해서 스님께서는 다른 화두는 일체 주지 않으시고 오직 주인공만을 화두로 삼으라고 하심이 곧 생활 참선이요 관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평소 생활하는 가운데 주인공을 믿고 일체 그 자리에 맡기고 지켜보자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과연 이것이 제대로 잘하는

것인가?' 하는 의심을 가끔 하게 됩니다.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침 받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보통 우리 일반 불자 가정에서는 한마음 공부를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해서 카세트 테이프나 혹은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서 설법을 듣거나 혹은 불경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카세트로 설법을 듣고 출근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하루 일과를 매우 충실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바쁘다 보면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 하고 그냥 뭐 대충 듣기도 하고, 마음자리에 관하지 않고 건성건성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텔레비전을 틀어 놓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과 이렇게 귀한 진리의 목소리를 틀어 놓고 듣지 않고 지나가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우리들 마음속에는, 아까 큰스님께서 설하시기를 생령 있는 모든 의식들이 다 주인공의 지휘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했는데 혹시 나는 의식이 그 설법에 마음을 두지 않았지만 다른 의식들이 그 설법만큼은 어떤 감응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소박한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큰스님의 큰 가르침이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스님: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선생님께서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럴 것이고 저렇게 생각했다면 저럴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한테 '꼭 마음공부를 하셔야 된다. 각자 여러분의 뿌리를 진짜로 믿어라. 마음으로는 그 몸을 다스리면서 행동하셔야 되고 안으로는 믿고 가셔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깥으로 카세트를 놓고

듣는 것은 물리를 띄우고 지혜를 얻고 모든 그 사물의 이치를 완전히 넓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듣고 누가 지금 살림을 하고 누가 다니고 있습니까? '누가 보고 누가 듣고 있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듣는 놈은 누구고 보는 놈은 누구고 하는 놈은 누구고, 아냐 하는 놈은 누구고 그렇다 하는 놈은 누구입니까? 바로 각자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화두 얘기 하셨는데, 옛날에는 화두를 주면 그냥 마음으로 직결해서 들어갔는데 지금은 안방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통해 세계를 내다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이 화두를 줬다. 어느 스님이 화두를 주셨다 이런다면 벌써 그 스님한테서 화두를 받았다는 생각부터 앞섭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으로 완전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두가 진짜로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항상 걸음으로 화두가 끊어질까 봐 애를 쓰면서 쪼뼛매고 오히려 더 걸똥아요. 자기가 이 세상에 나온 게 화두인데 남한테서 또 화두를 받아 가지고 한다면 그 화두가 걸똥아지 않습니까? 그러니 공부하는 아예 하기 틀렸죠.

질문자1(남): 감사합니다.

질문자2(남): 처음 한마음선원에 오게 되면 다른 사람과는 여러 가지 다른 점이 눈에 띕니다. 우선 법당부터가 불상 한 분만 모셔져 있고 장엄물이 적습니다. 또 관음재일 지장재 일이나 하는 기도나 금강경 강이나 다른 경전 강의 하는 것을 못 봤고 오직 한마음 주인공을 관하라고만 하십니다. 이 차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큰스님: 만약에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아버지가 둘 셋이라면 그거 참 골치 아프겠지요? 허허... 어머니가 둘 셋이라도 골치 아픈 일인데 아버지가 둘 셋이라면 얼마나 골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이 바로 하나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만사가 하나로 돌아갑니다. 삼천大千세계 우주 삼라만상이 전부 하나로 돌아가며 그 하나마저도 공했다 했습니다. 아까도 '내가 나라고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 내면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하나도 내세울 게 없다.' 했죠? 그러니까 모두 내면으로도 나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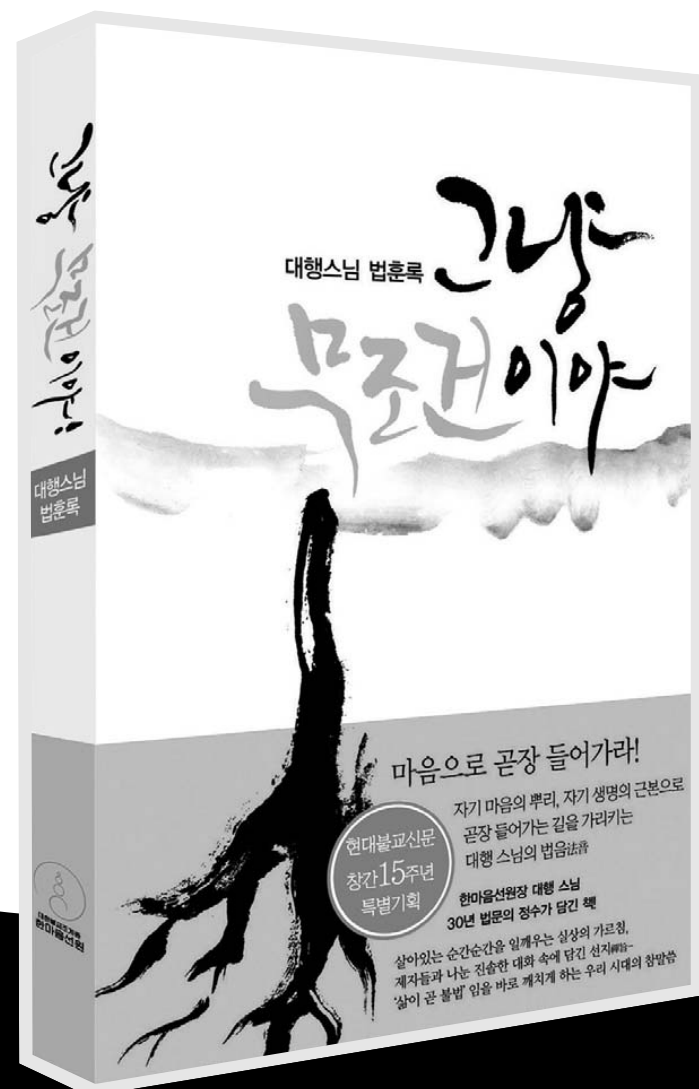
A30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현대불교 창간 19주년을 축하합니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들과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삼!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현대불교 현불삼

우리는 항상 자기를 잘 이끌어 가는 채찍이 되어야

☞ A29면에서 계속

님이 없고 외부적으로도 나 아님이 없는 것입니다. 왜? 보십시오.

어떤 회사를 경영하는 데도 직원이 없으면 사장이 없을 것이고 사장이 없으면 직원이 없을 것입니다. 직원과 사장이 어떻게 돌입니까? 네? 이게 없어도 아니 되고 저게 없어도 아니 되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없어도 아니 되고 마음내는 게 없어도 아니 되고 육신이 없어도 아니 됩니다. 마음내는 게 없으면 목적이 없고 생명이 없으면 무효고, 육신이 없으면 보이지 않으니 말입니다. 또 손가락 하나도 없어서는 아니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뭐라고 했는데 내가 이런 말을 하죠? 하하하...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지금 이 말을 하고 가죠?

질문자2(남): 우리 한마음선원 법당에는...

크스님: 네, 그래요. 참, 그렇군요. 하하하. 그래서 모두가 아주 쉽게 인식하고 가게 만들려면 아버지 하나면 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면 족하듯이 바로 부처님은 하나이지 둘이 아닙니다. 수천수만 분이 깨웠다 하더라도 평등공법 봉, 봉에 같이 모든 마음이 한마음이 돼서 주둔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따로 부처가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높고 낮음이 없이 한마음으로 공생·공용·공체·공식화 하고 돌아가고 평등하다는 그 뜻으로 바로 여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몸 한 체 한 체가 여래의 집입니다. 바로 이 속에 있는 모든 자생중생들이 화하게 되면, 바로 제도가 되면 그 여래 집안의 여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나 아님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냥 여래지요, 여래의 집이고요, 그리고 또 외부로 따진다면 따로따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같이같이 맞물려서 모두가 같이 돌아가지요. 생각을 해 보세요. 세상을 내다보세요. 하나나 혼자 살 수 있는 세계인가. 독불장군으로 혼자 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복하면 무시무종이라고 했을까요.

질문자2(남): 감사합니다.

질문자3(여): 스님,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7월 말에 봉정암에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 길인데다가 듣기로는 일곱 시간이 걸린다. 워너무 힘들다. 깎깎 고개가 어떻다 이래서 '갈 수 있을까?'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래서 '아, 이게 내가 가는 게 아니고 주인공이 가는 거 아니냐. 주인공이 가자. 근데 주인공 그 자리에서 축지법은 못 쓰더라도, 벌써 왔나 하는 정도의 마음으로 갈 수 있을 거다. 주인공이 해!' 이렇게 하고 백담사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랬는데 가면서 제 나름으로

의문이 생기길 '봉정암에 사리를 진경하고 무슨 북을 달라고 기도하러 가는 거는 아닐 거고 주인공이 가기는 하는데 나에게 무엇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내 나름으로 의문을 삼았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6월인가 7월 셋째주 법회 때 스님께서 "제발 직코스로 들어가라." 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래, 주인공! 직코스로 들어가자. 오늘 직코스 들어가서 내가 봉정암 사리탑에 가면 사리를 진경하는 것이 아니라 삼천 년 전 부처님의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마음을 볼 수 있게 해! 주인공이 가르쳐 줘!' 이렇게 하고 올라갔습니다. 계속 '직코스로 들어가자, 주인공!' 하면서 갔는데 정말로 아직 더 남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모퉁이를 도니까 다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아하, 이거였구나! 축지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쉽

았는데, 한 1주일쯤 지난 뒤에 꿈을 꾸는데 꼭 이와 같이 제가 마이크를 들고 스님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스님, 제가 봉정암에 갔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지금 한 이야기를 이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을 믿는다 믿는다 하면서도 제 생각에 '정말 내 주인공에 관한 것이 직통으로 통했을까?' 하는 못 믿는 구석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제가 스스로를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마침 질문의 기회가 있어 스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어서 제가 경험했던 이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아마 제가 믿는다 하면서도 혹시라도 못 믿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

크스님: 이거 보세요. 지금 우리가 작년에 수박을 심어서 먹고 씨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 수박씨를 심어서 수박이 또 났습니다. 근데 작년 수박하고 올 수박하고 다름나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날이 가고 해가 가고 세월이 흐르면서, 변하고 화하고 또 변하면서 이렇게 자꾸 바뀌 가며 살고 있습니다. 별성도 또 자기 몸을 바꿔 가면서 이렇게 살고 있고 우리도 역시 자꾸자꾸 바뀌 가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생각을 어떻게 하고 행동을 어떻게 하고 말을 어떻게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미래의 오늘에 오는 그 모습은 짐승의 모습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사람의 몸으로 살다가 짐승의 몸을 가져올 수도 있고 짐승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사람의 모습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마음과 마음을, 항상 자기를 잘 이끌어 가는 채찍이 돼야 된다는 얘깁니다.

르쳐 주십시오.

크스님: 절에 많이 다니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하나도 안 해 주고 만날 그저 이 말 저 말 끌어다 대서 말을 한다고 그러실지도 모르지만, 부처님께서 전자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지금 현재의 용어로 바꿔서 얘기해 드린 거지 그게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지금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부터 아셔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삼천 년 전에 그러셨고 사대 성인들도 그러셨어요. "너부터 알아." 했습니다. 달마 대사도 그 소리 했다고 약사발을 받고 소크라테스도 약사발을 받았습다 마는 내막적으로 본다면 그분들만 그렇게 약사발을 받은 게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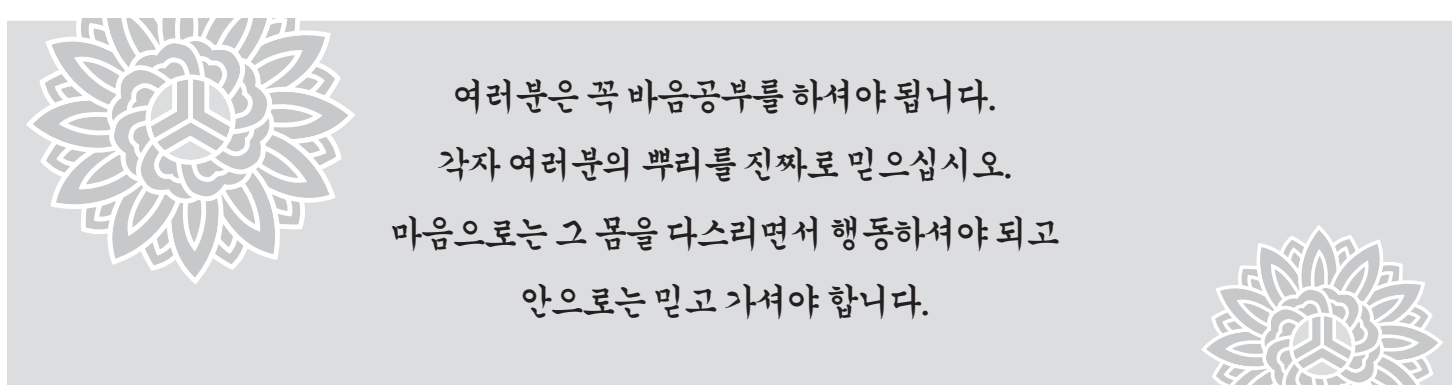
그런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육신이 나무라면 뿌리는 그 나무 밑에 있다. 그러니 나무 밑에 있는 뿌리한테 믿고 맡겨 놔라 이겁니다. '해 주시오' 가 아닙니다. '할 수 있다' 라고 해야 합니다. '해 주시오' 하면 벌써 들어 돼요. 그러니까 '너만이 낫게 할 수 있다.' 이런다면 금방 약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게 화합니다. 그래서 나투어 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로 인해서 관한다면 관세음미 돼 주고 신장이 돼 주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여러 가지로 나투어 주십시오. 그러면 안에서 자생중생이 화해서 그렇게 보살의 나뉠음으로 응신이 돼 주십시오. 그러면 안에서 깨달음도 있고 물리도 터지고 지혜도 생기고 또 생활하는 데도 이익하게 돌아가고, 얼마나 좋은 법입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자기 주인공을 진짜로 믿어서, 자기 뿌리를 믿지 않고 딴 뿌리에도 들이대고 기도하지 말고 내 뿌리에도 들이대고 '너만이 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안에서 일어나는 거, 외부에서 다가오는 거, 모든 것을 '너만이 할 수 있고 너만이 낫게 할 수 있고 너만이 화복하게 할 수 있고, 너만이 이끌어 줄 수 있고 너만이 물리가 터지게 할 수 있고 너만이 네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할 수 있고...' 하고 맡기세요. 모두 거기가 다 맡겨 놓으시고 '너만이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믿는다면 아주 그냥 밝아지지요. 생활이 윤택해집니다.

질문자4(남): 감사합니다.

크스님: 그렇게 알아야 모든 일체제불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골수도 알 수가 있고 일체중생들의 마음도 알 수가 있고 중생과 부처가 들어아님도 알 수가 있고, 이 세상을 모두 내 마음대로 자유자재할 수 있다 이 소립니다.

※ 위 법문은 1993년 10월 10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 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게 올라올 수 있었고 뜻밖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오늘 가져온 의문을 풀 수 있지 않을까. 주인공이 나한테 가르쳐 줄 것!'

그런 생각을 하면서 법당에 들어가서 삼 배를 하고 탁 돌아서 나오는 순간에 마침 풀숲에서 다람쥐 한 마리가 쪼르르 올라왔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에 '그래, 삼천 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늘 이 부처님과 다름이 없고 모두 한마음 주인공이라면 너하고 나하고도 둘이 아닐 것이 아니냐, 주인공. 다람쥐 년들 나하고 다르겠느냐. 한마음이라면 네 얼굴 한번 보자.' 이렇게 제 마음속으로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다람쥐가 가다가 탁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그 등에 대고 '그래, 보여 줘. 정말로 한마음이라면 보여 줘. 네 얼굴 한번 보자.' 이렇게 하니 다람쥐가 얼굴을 탁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람쥐를 보면서 '아, 그래 고맙다. 가르쳐 줘서 고맙다.' 이렇게 하는 순간에 다시 다람쥐가 숲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마음이라는 것, 그러니까 스님께서 말씀하신 풀 하나라도 둘이 아니라는 그런 것이구나 하고 제 나름대로 이제 환희심을 가지고 내려

까? 그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아들을 낳아서 다르다는 거와 같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씨가 그 씨고 그 수박이 그 수박이니까요. 삼천 년 전 부처님의 마음이나 지금 현재의 여러분의 마음이나 둘이 아닙니다. 바로 마음은 체가 없어서 우리가 지금 금방 이 자리에 앉아서 집에 갔다 오시라면 갔다 오실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앉아서도 뭐가 어디 있고 뭐가 어디 있고 통장은 어디다 뒀고, 하하하... 밥통은 어디 있고 똥통은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듯이 마음은 체가 없어서 그렇게 묘하게 지구 밖을 벗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물주머니에서 나와서 물주머니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물주머니에서 살고 있다는 거는 어항 속에서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 소립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의 모든 자생중생들을 제도하고 위로는 이 어항 속에서 벗어나고, 일체제불의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니게 항상 찰나찰나 서로가 통하고 이렇게 삶을 살면 우린 작년이 따로 없고 올이 따로 없고 내년이 따로 없습니다. 모습이

아까 그 다람쥐 얘기를 하는데, 한번 벽을 치면 붓장이 울리듯이 '삼천 년 전에 있는 부처님의 마음을 알려 다오.' 그랬으니 그 다람쥐가 보였다 하더라도 살았다는 걸로 아셔야 됩니다. 지금도 살고 계시다는 거를 말입니다. 네? 그 다람쥐의 모습을 보지 말고 다람쥐가 움직거리고 살았다는, 지금도 현재(顯赫)하게 부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질문자3(여): 스님, 감사합니다.

질문자4(남): 항상 우리 신도님들은 법문을 광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서는 그 실천 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들을 때는 깊은 감명 감동을 가지면서 '아, 그렇구나!' 하고 듣고 갑니다. 그러나 돌아서 나가면 그 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저버려 집니다. 그래서 우리 신도님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가지는 것과 아울러 가정생활을 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실천이 되고 지속적으로 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셔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게끔 가

현대불교 창간 19주년을 축하합니다

(주)에스큐
마하연투어

부처님께 한걸음 더 가까워지는 성지순례

불탑의 나라 미얀마 직항 "초특가"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 6일 179만원
출발일 : 2013년 10월 19일, 10월 26일
※아시아항공(직항) - 별도 추가 비용 없습니다.
- 양곤 / 바고 / 시리암(내셔널빌리지) - 5일 99만원
출발일 : 2013년 10월 16일, 10월 23일
※아시아항공(직항) - 별도 추가 비용 없습니다
- 인천 / 김해공항 출발 - 실속 (타이항공 초특가)
* 국내선 항공 이용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태국 파타야 7일 1,590,000원
양곤 / 바간 / 헤호 - 6일 요금문의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 6일 요금문의
양곤 / 바간 / 헤호 / 짜익티오 - 6일 요금문의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태국 파타야 - 7일 요금문의
해외 성지순례 단체 문의 주세요....

마하-연 여행사가 추천하는 품격 성지순례

● 지장도량 / 관음도량 (구화산 - 황산 - 보타산 - 낙가산)	7일	139만원
● 지장도량 (구화산 / 황산)	4일	109만원
● 관음도량 (보타산 / 낙가산)	4일	109만원
● 문수도량 (오대산 / 석가장)	5일	129만원
● 보현도량 (아미산 / 낙산)	5일	129만원
● 대만	5일	129만원
● 라오스 (직항)	6일	139만원
● 스리랑카 (직항)	6일	199만원

세계속의 성지순례

● 스리랑카 핵심 성지순례	6일	요금문의
● 스리랑카 성지순례와 몰디브 해변 휴양	8일	요금문의
● 베트남 / 캄보디아	6일	요금문의
● 민족의 백두산	5일	요금문의
● 용문석굴과 중국불교의 중심 소림사	5일	요금문의
● 몽고 테를지 울란바토르	5일	요금문의

(주)마하연투어 ☎ 02)365-7747
본사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대명빌딩 303호
대덕 크스님, 불자님들의 인연 소중히 생각하겠습니다. 대표 : 헤게 두손모음
해외지사 : 양곤 사무실 (가바이파고다 앞) / 전화 951-667170. HP 95943048476

- 모든일정은 10인 이상 출발
- 별도 추가경비 없음 (가이드 + 기사, 각종 비자피)
- 환율변동과 유류할증료 인상으로 추가요금 부과하지 않습니다.
- 날짜 및 항공요금에 따라서 동참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성수기, 비수기)
- 2억원 여행자보험가입